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⑦

죽어서도 연꽃 피운 팔가조



육산 김옥진 화가의 팔가조(鷹鷄)의 상징인 팔가조 두 마리가 소나무 위에 앉아 있다.

노안도(蘆雁圖)는 강변 모래사장에 내려앉으려 하는 하늘의 기러기를 그 주변의 기러기들이 기다리듯 바라보고, 갈대들을 정원의 나무들처럼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북송대에 완성돼, 남송대 이후 널리 유행했다.

노안도는 이른 바 평사낙안(平沙落雁)의 모습이다. 갈대 로(蘆) 자와 기러기 안(雁) 자를 쓰는데, 한자의 늙은 로(老)와 편안할 안(安)과 같은 발음을 쓰기에 늙어서도 안락을 누리길 바란다. 기러기는 암수의 금슬이 좋아서 부부해로의 뜻도 함께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보급되어 이 그림에 대한 제화시문(題畫詩文)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기 이후 크게 유행해 근대에 이르러 기까지 화가들이 즐겨 다룬 화제로, 선비의 노년이 평화롭고 풍요롭기를 기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팔가조는 중국에 사는 까마귀의 일종으로 한고(寒鳥)라고도 불린다. 팔가조는 어미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어미가 늙으면 눈이 먼다고 한다. 그러면 새끼는 어미결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려다 먹여살린다. 한중일 삼국의 동양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극한 효(孝)의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팔가조는 불심이 매우 깊은 새이다. 명나라의 4대 고승중 하나인 감산 대사(感山大師: 1546~1623)는 팔가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업의 힘이 커서 중생들은 다 업을 따라 윤회하는데 오직 연꽃만이 업장을 녹인다. 저 팔가조가 연꽃을 먹고 연장을 지닌 채 왕생했다. 또 옛날 사람이 팔가조라는 새를 키우는데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지라, 하루는 스님이 그 집에 와서 연꽃을

니 팔가조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스님이 연꽃할 때마다 팔가조도 따라 연꽃했다. 스님이 간 뒤에도 팔가조는 매일 연꽃하니 그 주인이 연꽃을 좋아한다고 그 새를 절에 보냈다. 스님들이 기특히 여겨 고성연꽃과 무념연꽃을 가르치니 팔가조가 알아듣는 것 같았다. 하루는 스님들이 곧 죽게 되는 팔가조 옆에서 연꽃을 했고, 그 뒤 팔가조는 장풍 속에서 죽었다. 팔가조 시신을 산에 묻어 주었더니 수일 후에 한 연꽃이 피어올라 있었다. 스님들이 땅을 파서보니 그 연꽃은 죽은 팔가조의 헛바닥에서 솟아나 있었다. 후대의 사람은 글에서 '신령한 새 팔가조가 있어 스님따라 아미타불을 연꽃했다. 죽어서 땅에 묻어 연꽃이 피었으니 우리 사람은 어찌 저만 못하냐고' 라고 했다.”

새에 불과한 팔가조도 연꽃을 해서 극락에 왕생하고 하여서 연꽃이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불자들이 연꽃하지 않는다면, 무릇 새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라 극락왕생을 바라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어쨌든 팔가조는 새의 무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효금(孝禽)이다. 그러면, 노안의 상징은 단지 늙어서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일까?

예전부터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우항 임경

불심 깊기로 유명한·신령한 새 팔가조

새도 연꽃해 극락가거늘 우리는 어찌...

수과 같은 대가 뿐 아니라 오월 장승업이나 노안도로 가장 유명한 석연 양기훈의 노안도를 보면, 가끔

보라색의 민들레 같은 모양을 가진 별개미취라는 꽃 그림이 함께 나온다. 오랫동안 자료를 찾아봐도 별개미취를 왜 그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하늘에는 인생의 황혼을 상징하는 달이 떠있고, 모래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갈대들, 서너 마리의 기러기가 쉬고 있는 곳에 쉬기 위해 날아내리는 아름다운 색깔과 자태를 보이며 당당하게 화면의 하단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우연히 별개미취꽃의 우리말 명칭이 자원(紫苑)인 것을 알게 됐다. 특히 별개미취꽃을 한약재로도 사용한다는 글을 보다가 자원이란 한자를 다른 한자인 자원(子願)으로 바꾸어 보면서 의문이 풀렸다.

즉, 노안자원(老安子願). 늙어서도 편안히 돌봐 줄 아들을 원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노안도에 별개미취꽃을 그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노안도나 팔가조는 다 같이 효도를 갈구하는 옛 조상들의 발원이니 스며든 장식화였던 것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가족

한 울타리 안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음은 행복한 일이다. 거친 비, 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음에 행복하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마주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소중한 인연인연들은 송이송이 꽃이 되는 가족이란 화장세계이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⑩ 조선 영허해일 전사의 '결제(結制)'

깨닫는 것은 하룻밤의 일

禁足青山裏 (금족청산리) 九旬念無違 (구순념무위) 頭燃求至道 (두연구지도) 履薄畏邪思 (리박외사사) 百鍊多生業 (백련다생업) 明星一夜期 (명성일야기) 身心俱放下 (신심구방하) 閑坐亦無爲 (한좌여무위)

산문을 나가지 않고 청산 속에서 구십일동안 생각에 어긋남이 없이하리 머리엔 불을 끄듯 지극한 도를 구하고 얇은 얼음 밟듯이 사된 생각을 두려워하리 백련검은 다생의 일이고 밝은 별빛은 하룻밤의 기약이라 몸과 마음을 함께 내려놓으면 한가로운 좌선함도 무위이리.

조선 영허해일(映虛海日: 1541~1609) 스님은 어머니가 기이한 사람이 밝은 구슬을 주며 잘 간직하라는 꿈을 꾸고 스님을 낳았다. 19세에 출가한 이후 묘향산·금강산 등 30여 년 동안 선지식을 찾아 제방을 유력하며 교를 열람하고 선을 참구하여 의신

을 결단했다. 49세 때 실상사에서 <지장경(地藏經)>을 독송하던 중 지장보살이 나타나 감로수로 정수리를 씻어주는[灌頂] 꿈을 꾸 후 마음이 환연히 열려 걸림이 없게 됐다. 이 시는 결제에 임해 그 마음가짐을 시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부처님 당시 유행(遊行)하기 어려운 우기(雨季)에 한 곳에서 정진 수행했다. 그 전통에 따라 여름·겨울 90일 간 산문을 벗어나지 않고 용맹이 정진하는 결제에 대해 수련에서 읊었다. 한편에서는 화두참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읊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如救頭燃)' '얇은 얼음 밟듯(如履薄冰)'이라는 것은 선문의 주장자가 된 지 오래다. 경련에서는 좋은 검은 거둬 단련 하여야 하나 깨닫는 것은 하룻밤의 일임을, 미련에서는 방하착(放下着)하면 그 자리가 무위의 도임을 보았다.

운문골에도 남자들이 찾아 들었다. 포행하며 만나는 스님들은 서로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 서로의 일념에 방해되지 않게 위해서다. 지금 여기 묵묵히 걸어가 수행자의 발걸음이 또 한분의 부처님이 시기를 연원해 본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⑤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⑥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부를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정리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타블로이드판 257x364/536쪽/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02)6015-6332/010-2002-6332